

물질주의와 정신건강: 경제적 수준으로 조절되지 않는 부적관계

신 희 성
(고려대학교)

김 태 익
(고려대학교)

박 유 빈
(고려대학교)

박 선 응*
(고려대학교)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물질주의는 개인의 정신건강 수준을 반영하는 여러 지표와 부적 상관을 보인다. 물질주의가 높은 사람들의 낮은 정신건강의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 즉 물질적 목표 도달의 실패, 그리고 외적 목표 추구로 인한 심리적 욕구의 비충족이 논의된 바 있다. 본 연구는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경제적 수준의 조절효과에 대한 서로 다른 가설을 위의 두 관점으로부터 도출하여 살펴 보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169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물질주의와 우울감, 심리적 안녕감, 삶의 의미 간의 관계에서 가구 월 소득 및 지각된 자원 이용가능성으로 측정된 경제적 수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2에서는 경제적 자원 활용에서의 통제감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 152명을 대상으로 위의 효과를 재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물질주의는 개인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높은 우울감, 낮은 심리적 안녕감과 낮은 삶의 의미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물질주의 가치관이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본 연구가 지니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 용어: 물질주의, 가치관, 정신건강, 객관적 경제적 수준, 주관적 경제적 수준

이 연구는 2017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박선웅, 고려대학교(sunwpark@korea.ac.kr)

■ 투고일: 2017.7.28 ■ 수정일: 2017.9.19 ■ 게재확정일: 2017.9.22

I. 서론

2016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95개국 중 11위로(World Bank, 2017) 한국은 유사 이래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물질적 풍요가 정신적 풍요로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한국의 자살률은 183개국 중 3위이고(World Health Organization, 2017), 지난 5년 간 우울증으로 진단 받은 사람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 평소 부정적 정서보다 긍정적 정서를 더 경험하는 비율은 130개국 중 하위 15위(Diener, Suh, Kim-Prieto, Biswas-Diener, & Tay, 2010)로, 여러 지표는 한국인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소득의 증가가 정신건강의 지표 중 하나인 주관적 안녕감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기존의 연구결과(Stevenson & Wolfers, 2013)와 배치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¹⁾.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물질주의 가치관에 주목하고자 한다. 물질주의란 단순히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물질을 인생의 중심 가치로 여기고 성공의 잣대로 인식하며 행복의 근원으로 간주하는 가치관을 의미한다(Belk, 1984; Richins & Dawson, 1992). 많은 선행연구에서 물질주의는 정신건강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예를 들어, 물질주의는 주관적 안녕감(김경미, 2014; 이민아, 송리라, 2014)과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반면, 우울감(이민아, 송리라, 2014)과는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특히, Kasser와 동료들(2014)은 높은 물질주의가 낮은 수준의 정신건강을 야기한다는 인과적 관계를 종단연구와 중재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12년, 2년, 6개월에 걸쳐 수행한 3개의 종단 연구에서 물질주의는 일관적으로 낮은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물질주의 감소 중재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물질주의 감소와 자존감의 증가에 효과를 보였다. 요컨대, 물질주의가 정신건강을 부적으로 예측한다는 사실은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높은 물질주의가 낮은 정신건강을 예측하는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1) 소득과 주관적 안녕감 사이의 정적 상관관계가 직선적 관계인지 곡선적 관계인지에 대한 논쟁은 진행 중이며, 후자를 지지하는 논문들 역시 다수 존재한다(예, Diener & Biswas-Diener, 2002; Easterlin, 1974).

관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Sirgy와 동료들(2013)은 물질주의가 높은 사람들이 낮은 수준의 정신건강을 보이는 이유가 그들이 추구하는 높은 물질적 목표와 현실 간의 괴리, 즉 목표 도달의 실패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와 달리, Kasser와 동료들(Kasser & Ryan, 1993, 1996; Kasser, 2002)은 물질주의가 높은 사람들이 물질적 가치에 대해 집착하고 근본적인 심리적 욕구 충족을 등한시하여 낮은 정신건강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두 관점은 곧 높은 경제적 수준(경제적 목표 도달)이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의 부적 상관을 약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다른 가설을 제시한다. 첫 번째 관점에 따르면, 물질주의가 높은 사람들의 낮은 정신건강 수준은 이들의 경제적 수준(경제적 목표 도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두 번째 관점에 따르면, 개인의 경제적 수준은 물질주의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조절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에서는(La Barbera & Gürhan, 1997; Nickerson, Schwarz, Diener, & Kahneman, 2003; 이민아, 송리라, 2014), 방법론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물질주의가 높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수준이 높으면 정신건강이 좋을 수 있는지, 즉 경제적 수준이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의 부적 관계를 조절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물질주의와 정신건강

선행연구는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들과의 부적 관계를 일관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예컨대, 물질주의가 높은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낮고(Richins & Dawson, 1992; Ryan & Dziurawiec, 2001), 일상적으로 낮은 긍정적 정서와 높은 부정적 정서를 보고하며(Christopher & Schlenker, 2004), 불안감 및 신경증(Watson, 2014, 201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불확실한 자기 개념 및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며(Kasser & Kasser, 2001; Noguti & Bokeyar, 2014) 자기실현 및 활력 수준이 낮다(Kasser & Ryan, 1993, 1996; Kasser & Ahuvia, 2002). 나아가 Dittmar,

Bond, Hurst와 Kasser(2014)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물질주의는 개인적 안녕감을 나타내는 12개의 지표와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처럼 물질주의와 정신건강 사이에 부적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관점을 취하고 있다. 첫 번째 관점에 의하면,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의 부적 관계는 물질주의가 높은 사람들이 갖는 높은 물질적 목표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현실 간 괴리의 결과물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에 도달했을 때 혹은 도달해가는 과정에서 높은 삶의 질,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등을 경험한다(Klug & Maier, 2015). 반면, 목표에 이르지 못한 상태, 즉 목표와 자신의 현실 사이의 괴리를 지각하는 것은 정신건강의 다양한 지표와 부적의 상관을 보인다. 예를 들어, 자신이 바라는 경제적 수준(목표)에 비해 현재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더 낮다고 지각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낮은 주관적 안녕감을 보고한다(Solberg, Diener, Wirtz, Lucas, & Oishi, 2002; Brown, Kasser, Ryan, Linley, & Orzech, 2009). 마찬가지로, 물질주의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 물질적 삶의 수준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고(Sirgy, 1998) 자신의 현재 상황을 높은 물질적 목표에 자주 비교하기 때문에(Sirgy et al., 2013) 목표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크게 지각하여 낮은 정신건강을 보일 수 있다.

다양한 삶의 하위 영역에서의 만족도가 종합적인 삶의 질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상향적(bottom-up) 관점(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역시 이러한 주장을 지지한다. 물질적인 목표와의 괴리를 지각하는 것은 곧 경제적 하위 영역에서의 낮은 만족도를 의미하는데, 물질주의가 높은 사람들의 낮은 경제적 만족도는 전반적인 삶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확산(spillover)될 수 있기 때문이다(Sirgy, Lee, Larsen, & Wright, 1998). 다시 말해, 물질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본인이 가진 이상적인 물질적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만족하지 않음으로 인해, 삶에 대한 전반적인 낮은 만족감 및 낮은 정신건강을 보이는 것일 수 있다.

이와 달리 Kasser와 동료들(Kasser & Ryan, 1993, 1996; Kasser, 2002)은 목표 혹은 가치의 본질이라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의 부적 관계를 설명한다. 즉, 물질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 하는 물질주의적 태도 자체가 낮은 정신건강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이론적 바탕인 자기결정이론(Deci & Ryan, 1985)에 의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관계성

(relatedness)으로 구성된 근원적인 심리적 욕구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심리적 성장, 통합감(integrity) 및 안녕감을 경험할 수 있다(Deci & Ryan, 2000). 하지만 물질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물질이라는 외적 가치(extrinsic value)만을 추구할 뿐, 이러한 근원적인 심리적 욕구의 충족과 관련된 내적 가치(intrinsic value)를 등한시하기 때문에 낮은 정신건강을 보이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Kasser와 Ryan(2001)은 내적 가치와는 달리 외적 가치는 외부의 승인이나 보상을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설사 그 가치를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에게 근원적인 의미와 만족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Niemiec, Ryan과 Deci(2009)의 연구에서는 내적 목표의 달성이 기본적 심리적 욕구 충족을 통해 심리적 건강으로 이어진 반면, 외적 목표의 달성은 두통 등의 신체적 증상을 비롯하여 불안감 등 부정적 지표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나아가, 물질주의가 높은 사람들이 대인관계의 질이 낮다는 연구결과(Kasser & Ryan, 2001; Roberts & Clement, 2007)는 물질주의가 높은 사람들이 물질적 부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관계성과 같은 내적 가치를 등한시한다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물질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소속감(Kasser & Ryan, 1993) 또는 박애(Schwartz, 1996)와 같은 내적 가치를 등한시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구축할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Kasser, Ryan, Couchman, & Sheldon, 2004)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관계의 질이 낮을 수 있다(Solberg, Diener, & Robinson, 2004). 요컨대, 이러한 심리적 욕구 비충족 관점에 의하면, 물질이라는 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심리적 욕구의 충족으로 이어지지 못하며, 오히려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적 가치의 추구를 방해하기 때문에 물질주의는 정신건강과 부적인 관계를 보이게 된다.

한편, 일부 연구자들은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적 환경이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지지해주는지가 정신건강에 있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Sagiv & Schwartz, 2000). 하지만, 물질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경영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조차(Kasser & Ahuvia, 2002; Vansteenkiste, Duriez, Simons, & Soenens, 2006) 높은 물질주의는 높은 불안감, 낮은 자기실현 및 낮은 활력 등 정신건강의 부정적인 지표들과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치의 본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지지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2. 물질주의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경제적 수준의 조절효과

이상의 두 관점으로부터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의 부적 관계를 경제적 수준이 조절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가설이 도출된다. 목표 도달론적 관점에 의하면,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의 부적 관계는 물질주의가 높은 사람들이 갖는 높은 물질적 목표와 현실 간의 괴리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이들이 높은 물질적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즉 높은 경제적 수준을 영위하게 되면 물질주의와 정신건강 간의 부적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실제로, 명품 소비와 삶의 만족도 간의 정적 상관은 물질주의가 높은 사람들에게 더 크게 나타났는데(Hudders & Pandelaere, 2012), 이는 명품 소비라는 단기적인 물질적 목표의 성취가 물질주의가 높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물질주의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가 경제적 수준에 의해 조절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심리적 욕구 비충족 관점에 따르면,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의 부적 관계는 추구하는 가치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높은 경제적 수준을 달성했는지 여부는 둘 간의 관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Richins(2013)는 세 개의 연구를 통해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 즉 물질적 성취를 이루는 것이 물질주의가 높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물질주의가 높은 사람들의 긍정정서는 물건을 구입한 이후 계속 떨어졌고, 중요한 물건에 대한 상품 만족도 역시 물질주의가 낮은 사람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의 관계가 경제적 목표 달성, 즉 경제적 수준에 의해 조절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경제적 수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La Barbera와 Gürhan(1997)과 Nickerson과 동료들(2003)의 연구에서는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의 부적 상관이 경제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약해졌지만, 이민아와 송리라의 연구(2014)에서는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경제적 수준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렇듯 상충되는 결과는 방법론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물질주의를 측정하는 데 있어 경제적 성공에 대한 갈망(Nickerson et al., 2003) 혹은 돈을 인생의 우선적 가치로 보는 지(이민아, 송리라, 2014) 등의 단일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다차원적인 물질주의 척도를 사용하는 방법에 비해 효과 크기가 낮다는 한계점을 지닌다(Dittmar et al.,

2014). 예외적으로 다차원적 척도를 통해 물질주의를 측정한 La Barbera와 Gürhan(1997)의 연구의 경우, 신경증과 상관이 높은(Solberg et al., 2004) Belk(1984)의 척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Ward와 Wackman(197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타당하게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질주의 측정에 널리 사용되는 Richins와 Dawson(1992)의 척도를 이용해 물질주의를 측정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방법론적인 한계를 보완하였다.

3. 경제적 수준의 측정과 관련된 문제들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경제적 수준의 조절효과를 검토한 선행연구는 경제적 수준의 지표로 연평균 가구소득(La Barbera & Gürhan, 1997; Nickerson et al., 2003)이나 월평균 가구소득(이민아, 송리라, 2014) 등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 역시 이러한 선행연구의 연장선에서 월평균 가구소득을 사용하였다. 특히, '가진 것(재산)보다 버는 것(소득)'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한국인의 삶의 질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하여(장하성, 2015), 월평균 가구소득을 객관적 경제적 수준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사람마다 지각하는 경제적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수준의 잣대로 객관적인 지표만을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들은 경제적 수준의 객관적인 지표와 이에 대한 본인의 주관적인 인식 사이에 괴리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 중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이 정신건강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예컨대, 구재선과 서은국(2011)의 연구에서는 실제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보다 스스로를 고소득자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행복과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Johnson과 Krueger(2006) 역시 지각된 경제적 상황이 실제 소득보다 삶의 만족도를 더 강력하게 예측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경제적 수준의 조절효과를 검토함에 있어, 주관적인 경제적 수준의 측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수준의 지표로 객관적인 경제적 수준과 주관적인 경제적 수준을 모두 측정하여 조절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연구를 통해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의 다양한 지표 사이의 관계

에서 객관적 및 주관적 경제적 수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물질주의를 독립변인으로, 월평균 가구소득과 지각된 자원 이용가능성을 조절변인으로, 그리고 우울, 심리적 안녕감, 삶의 의미를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2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을 제외한 모든 변인을 연구 1과 똑같이 설정하고 재직자들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 1의 결과를 재현하고자 했다.

III. 연구 1

1. 연구방법

가.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는 전문적인 설문조사 업체의 온라인 설문에 응답한 전국 성인남녀 169(남성 = 82)명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 업체에 미리 등록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설문에 대한 안내문이 배포되었으며 이 중 참여에 동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온라인 설문지 상에 성별, 나이, 거주지역 등 간단한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연구와 관련된 척도에 응답하였다. 자료 수집은 참여자들의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해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응답자들의 평균연령은 38.9(SD = 11.5)세였다.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 41명, 30대 45명, 40대 42명, 50대 41명이었다. 교육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졸 이하 2명, 고졸 43명, 대졸 108명, 대학원 졸업 16명이었다.

나. 측정도구

1) 물질주의

물질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Richins와 Dawson(1992)이 개발한 물질주의 가치 척도

(Materialism Value Scale)를 연구자들이 직접 번역 및 역 번역 절차를 거쳐 번안한 후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물질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여러 척도 중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척도로, 3개의 하위척도와 총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척도에 관계없이 모든 문항의 평균값인 전반적 물질주의를 예측변인으로 사용하였다.²⁾ 예시 문항으로는 “더 많은 것을 살 여유가 있다면 나는 더 행복할 것이다” 등이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7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물질주의를 나타낸다.

2) 객관적 경제적 수준

객관적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월평균 가구소득을 수집하였다. 참여자들은 소득 및 이자 수입을 포함한 세전 가구소득을 만 원 단위로 작성하였다. 참여자들의 월 소득 범위는 50만 원에서 1,300만 원이었고 평균은 462.83($SD = 255.61$)만 원이었다. 이는 2015년 기준 한국인의 월평균 소득(437.31만 원, 통계청, 2016)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일표본 $t(168) = 1.30, p = .196$.

3) 주관적 경제적 수준

주관적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지각된 자원 이용가능성 척도(Griskevicius, Delton, Robertson, & Tybur, 2011) 중 현재의 경제적 수준에 관한 세 문항을(예, “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사기에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은 현재 자신에게 가용한 자원(예, 자산)이 얼마나 풍부하다고 지각하는지에 대해 7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2) 물질주의 가치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는 연구주제의 맥락에 따라 전반적인 물질주의를 예측변인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예, Richins, 2013; Kasser et al., 2014) 하위척도에 따라 분석을 진행한 경우도 있다(예, Richins & Chaplin, 2015; Roberts & Clement, 2007).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에 따른 구체적인 가설을 상정하지 않은 관계로 전반적 물질주의를 예측변인으로 사용하여 결과를 보고하였다. 3개의 하위척도별로 분석한 결과 역시 전반적 물질주의를 예측변인으로 사용한 결과와 대부분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총 64개의 상호작용항 중 유의한 상호작용항은 3개에 불과했다). 나이, 성별, 교육수준을 통제한 결과 역시 이와 일관된 양상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분석결과와 관련된 추가 분석 자료는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 있다.

4) 우울감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의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전경구와 이민규(1992)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지난 일주일 동안 개인이 느낀 우울 정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점: 거의 드물게, 4점: 대부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우울감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의 평균값인 전반적 우울감을 준거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평소에는 성가시지 않았던 일이 성가시게 느껴졌다” 등이 있다.

5)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s Scales)를 30문항으로 축약 및 개정한 척도(Ryff et al., 2012)를 연구자들이 직접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율성(예, “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될지라도 나의 의견에 자신이 있다”), 환경에 대한 지배력(예, “나는 나의 일상생활에서의 많은 책임들을 관리하는 것에 매우 능숙하다”), 개인적 성장(예,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개인으로서 많이 발전했다고 느낀다”), 긍정적 대인관계(예, “사람들은 나를 다른 사람과 나의 시간을 기꺼이 공유할 줄 아는 너그러운 사람으로 묘사하곤 한다”), 삶의 목적(예, “어떤 사람들은 목표 없이 삶을 방황하며 살아가지만 나는 그들 중 한 사람이 아니다”), 자기수용(예, “나는 내 성격의 대부분의 측면을 좋아한다”) 등 6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7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나타낸다.

6) 삶의 의미

삶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해 Steger, Frazier, Oishi와 Kaler(2006)가 개발한 삶의 의미 척도(Meaning in Life Questionnaire)를 원두리, 김교현, 권선중(200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삶의 의미 존재와 삶의 의미 추구라는 2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

져 있지만, 그 중 삶의 의미 추구는 나이 등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변인이 아닌 다른 변인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Steger, Oishi, & Kashdan, 2009) 삶의 의미 존재의 5개 문항(예,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만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7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삶의 의미를 나타낸다.

2. 연구결과

가. 참여자들의 경제적 수준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들의 월평균 가구소득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19명(11.2%),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27명(16.0%),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33명(19.5%),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22명(13.1%), 5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23명(13.6%), 6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12명(7.1%), 700만 원 이상 8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11명(6.5%), 그리고 8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22명(13.0%)으로 참여자들의 소득 수준이 비교적 균일하게 분포되었다.

나. 주요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와 각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물질주의는 모든 준거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우울감과는 정적 상관을 보이고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척도 및 삶의 의미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물질주의와 정신건강 사이에 부적 관계가 있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Dittmar et al., 2014). 또한, 물질주의는 자각된 자원 이용가능성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월 소득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La Barbera & Gürhan, 1997). 이는 물질주의와 객관적 경제적 수준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지만, 물질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적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표 1. 변인들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연구 1)

변인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물질주의	-														
2. 우울감	.24**	-													
3. 전반적 심리적 안녕감	-.30**	-.58**	-												
4. 자율성	-.19*	-.14	.60**	-											
5. 환경지배력	-.29**	-.52**	.84**	.53**	-										
6. 개인성장	-.21**	-.45**	.81**	.42**	.59**	-									
7. 대인관계	-.18**	-.47**	.78**	.33**	.52**	.54**	-								
8. 삶의 목적	-.22**	-.48**	.81**	.32**	.55**	.61**	.62**	-							
9. 자아수용	-.32**	-.58**	.77**	.35**	.74**	.61**	.46**	.49**	-						
10. 삶의 의미	-.21**	-.45**	.75**	.41**	.63**	.64**	.45**	.67**	.63**	-					
11. 월 소득	.07	-.17*	.23**	.15	.18*	.17*	.19*	.22**	.15	.18*	-				
12. 지각된 자원이용가능성	-.16*	-.31**	.27**	.13	.37**	.21**	.01	.12	.48**	.32**	.29**	-			
13. 나이	-.09	-.08	.16*	.16*	.14	.08	.16*	.15*	.03	.27**	-.03	.05	-		
14. 성별	-.12	-.03	.06	.01	.02	.15	.04	.05	-.01	.05	.14	-.01	-.05	-	
15. 교육 수준	-.06	.01	.12	.08	.11	.13	.02	.11	.11	.16*	.19*	.16*	.11	-.08	-
평균(M)	3.99	1.87	4.38	4.33	4.16	4.42	4.52	4.79	4.04	4.75	462.83	3.48	38.92	1.51	2.82
표준편차(SD)	0.71	0.53	0.73	0.75	0.87	0.89	1.07	1.19	0.85	1.16	255.61	1.39	11.50	0.50	0.60
내적합치도(α)	.81	.92	.91	.55	.68	.65	.76	.82	.62	.86	-	.79	-	-	-

주. 전반적 심리적 안녕감은 6개 하위척도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자는 1, 여자는 2로 코딩하였다. 교육 수준은 최종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 1, 고졸인 경우 2, 대졸인 경우 3, 대학원 졸업인 경우 4로 코딩하였다.

* $p \leq .05$, ** $p \leq .01$

다. 물질주의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경제적 수준의 조절효과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의 관계가 경제적 수준에 의해 조절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예측변인(물질주의)과 조절변인(월 소득 및 지각된 자원 이용가능성)을 각각 표준화한 후 두 변인을 곱해 상호작용항을 만들었다(서영석, 2010; 홍세희, 정송, 2014). 1단계에 물질주의와 월 소득 또는 지각된 자원 이용가능성을 넣고 2단계에 상호작용항을 넣어 회귀분석을 총 16회 실시하였다.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물질주의의 주효과는 모든 준거변인에서 낮은 정신건강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유의하였다. 객관적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월 소득의 주효과는 모든 준거변인에서 높은 정신건강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유의하였다. 주관적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각된 자원 이용가능성 역시 월 소득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3가지 준거변인(자율성, 대인관계, 삶의 목적)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핵심 가설인 물질주의와 경제적 수준의 상호작용은 모든 항목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물질주의와 정신건강 간의 부적 상관관계가 경제적 수준에 의해서 조절되지 않음을, 즉 소득 수준이 높은 물질주의자 역시 정신건강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나이, 성별, 교육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2. 준거변인에 대한 물질주의와 경제적 수준의 조절효과(연구 1)

	우울감	전반적 심리적 안녕감	자율성	환경지배력	개인성장	대인관계	삶의 목적	자아수용	삶의 의미
단계 1									
물질주의	.14**	-.23**	-.15**	-.27**	-.20**	-.21**	-.28**	-.29**	-.25**
월 소득	-.10**	.18**	.12*	.18**	.16*	.21**	.28**	.15*	.22**
R ²	.10**	.15**	.06**	.13**	.08**	.07**	.10**	.13**	.08**
단계 2									
물질주의(A)	.14**	-.23**	-.15**	-.26**	-.19**	-.21**	-.27**	-.29**	-.26**
월 소득(B)	-.10**	.18**	.12*	.17**	.15*	.21**	.27**	.15*	.22**
A × B	-.02	.08	.07	.13	.13	.04	.12	-.01	-.01
ΔR ²	.00	.01	.01	.02	.02	.00	.01	.00	.00
단계 1									
물질주의	.11**	-.19**	-.13*	-.21**	-.16*	-.20*	-.24**	-.21**	-.18*
지각된 자원 이용가능성	-.15**	.17**	.08	.29**	.16*	-.02	.11	.38**	.35**
R ²	.14**	.14**	.05*	.20**	.08**	.03	.05**	.30**	.13**
단계 2									
물질주의(A)	.11**	-.19**	-.13*	-.21**	-.16*	-.20*	-.24**	-.21**	-.18*
지각된 자원 이용가능성(C)	-.15**	.17**	.08	.29**	.16*	-.02	.11	.38**	.35**
A × C	.00	.02	.05	.09	-.03	.02	-.05	.05	-.03
ΔR ²	.00	.00	.01	.01	.00	.00	.00	.00	.00

주. 물질주의, 월 소득 및 지각된 자원 이용가능성의 데이터는 분석 시 표준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 $p \leq .05$, ** $p \leq .01$

3.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경제적 수준이 조절하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경제적 수준은 정신건강과 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물질주의의 가치관은 정신건강과 부적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물질의 소유 그 자체는 높은 정신건강 수준과 상관이 있는 반면, 물질에 높은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물질주의는 낮은 정신건강과 상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의 부적 관계는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연구 1의 참여자 모집에 있어 참여자들의 재직 여부가 고려되지 않았는데, 이는 재직 여부에 따라 경제적 수준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현재 직업을 가지고 가정의 월 소득에 기여하는 사람에 비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경제력에 대한 내적 통제감이 낮을 것이며, 이러한 통제감의 차이가 경제적 수준의 조절효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재직 중인 사람들은 삶에 대한 통제감이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고(Ross & Mirowsky, 1992) “내 경제적 상황은 내가 상황을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 지각된 통제소재 척도에서도 내적 통제 소재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umarwan & Hira, 1993). 실제로 연구 1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관적 경제적 수준(지각된 자원 이용가능성)을 비교한 결과, 직장이 있는 사람들($M = 3.54, SD = 1.37$)이 직장이 없는 사람들($M = 2.69, SD = 1.46$)에 비해 주관적 경제적 수준이 더 높았다, $t(167) = 2.15, p = .03$. 따라서 연구 2에서는 직장이 있는 성인만을 연구대상으로 모집하여 연구 1과 같은 결과가 재현되는지 확인하였다.

IV. 연구 2

연구 2의 목적은 연구 1에서 얻은 결과를 다른 표본을 이용해 재현하는 것이지만, 다음의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참여자들을 직장이 있는 성인으로 제한하였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재직 여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 잠재적 혼재변인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둘째, 연구 1에서 사용한 정신건강의 지표 중 심리적 안녕감을 제외하고 우울감과 삶의 의미만을 포함했다.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된 연구 문제는 물질주의와 정신건강 간의 부적인 상관관계가 경제적 수준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1. 연구방법

가. 연구대상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연구 2의 자료는 전문적인 설문조사 업체를 통해 참여자들의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한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연구 2는 현재 직장을 가진 전국 성인남녀 152(남성 = 89)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연구 참여자들은 온라인 설문지 상에 성별, 나이, 거주지역 등 간단한 인적 사항을 입력한 뒤 연구와 관련된 척도에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의 평균연령은 42.5($SD = 8.2$)세였다.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30대 61명, 40대 51명, 50대 40명이었다. 교육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졸 25명, 대졸 109명, 대학원 졸업 18명이었다.

나. 측정도구

연구 2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을 제외한 모든 척도가 연구 1과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연구 2 참여자들의 월 소득 범위는 100만 원에서 1,600만 원이었고 평균은 478.84($SD = 228.70$)만 원이었다. 이를 2015년 기준 한국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478.53만 원; 통계청, 2016)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표본 $t(151) = .02, p = .987$.

2. 연구결과

가. 참여자들의 경제적 수준

참여자들의 월평균 가구소득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9명(5.9%),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18명(11.9%),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28명(18.4%),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23명(15.1%), 5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33명(21.7%), 6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19명(12.5%), 700만 원 이상 8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8명(5.3%), 그리고 8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14명(9.2%)으로 참여자들의 소득 수준이 비교적 균일하게 분포되었다.

나. 주요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표 3. 변인들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연구 2)

변인명	1	2	3	4	5	6	7	8
1. 물질주의	-							
2. 우울감	.39**	-						
3. 삶의 의미	-.27**	-.36**	-					
4. 월 소득	-.14	-.17*	.21**	-				
5. 지각된 자원이용가능성	-.41**	-.27**	.25**	.22**	-			
6. 나이	-.28**	-.09	.19*	.23**	.07	-		
7. 성별	.02	.07	-.05	.08	.12	-.13	-	
8. 교육 수준	-.16	-.18*	.32**	.26**	.23**	.03	-.03	-
평균(M)	3.97	1.84	4.46	478.84	3.76	42.47	1.41	2.95
표준편차(SD)	0.71	0.45	0.95	228.70	1.19	8.22	0.49	0.53
내적합치도(α)	.85	.91	.85	-	.75	-	-	-

주. 성별의 경우 남자는 1, 여자는 2로 코딩하였다. 교육 수준은 최종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 1, 고졸인 경우 2, 대졸인 경우 3, 대학원 졸업인 경우 4로 코딩하였다.

* $p \leq .05$, ** $p \leq .01$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와 각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표 3>과 같다. 상관분석 결과 물질주의는 우울감과는 정적 상관을, 삶의 의미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물질주의가 높을수록 우울감을 더 느끼고 삶의 의미도 낮게 지각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물질주의는 지각된 자원 이용가능성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월 소득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즉, 물질주의와 객관적 경제적 수준은 관련이 없지만, 물질주의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경제적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 물질주의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경제적 수준의 조절효과

표 4. 준거변인에 대한 물질주의와 경제적 수준의 조절효과(연구 2)

	우울감	삶의 의미
단계 1		
물질주의	.17**	-.23**
월 소득	-.06	.17*
R ²	.17**	.10**
단계 2		
물질주의(A)	.17**	-.23**
월 소득(B)	-.08*	.15
A × B	-.05	-.06
ΔR ²	.02	.01
단계 1		
물질주의	.15**	-.19*
지각된 자원 이용가능성	-.06	.16*
R ²	.17**	.10**
단계 2		
물질주의(A)	.15**	-.19*
지각된 자원 이용가능성(C)	-.06	.17*
A × C	-.02	-.02
ΔR ²	.01	.00

주. 물질주의, 월 소득 및 지각된 자원 이용가능성의 데이터는 분석 시 표준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 $p \leq .05$, ** $p \leq .01$

월 소득 혹은 지각된 자원 이용가능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 1과 동일하게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준화한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을 1단계에 넣고 상호작용항을 2단계에 넣어 회귀분석을 하였다(표 4). 물질주의의 주효과는 모든 준거변인에서 낮은 정신건강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유의하였다. 월 소득과 지각된 자원 이용가능성의 주효과는 우울감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삶의 의미에서는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핵심 가설인 물질주의와 경제적 수준의 상호작용은 모든 항목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연구 1과 동일한 결과로 물질주의와 정신건강 간의 부적 상관관계가 경제적 수준에 의해서 조절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나이, 성별, 교육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3. 논의

연구 2의 목표는 연구 1에서 나타난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의 관계 및 경제적 수준의 조절효과를 재직자로 한정된 대상에게 재검증하는 것이었다. 연구 1에서 참여자들의 재직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 수준과 별개로 실제로 체감하는 경제력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연구 2에서는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신건강은 물질의 소유 자체와는 정적 관계를, 하지만 물질주의와는 부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나아가, 물질주의와 정신건강 사이의 부적 관계는 경제적 수준에 의해 조절되지 않아 물질주의가 높으면 경제적 수준이 높아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연구 1의 결과를 재현하였다.

V. 종합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의 부적 관계에서 경제적 수준의 조절효과를 검토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성인 남녀 169명(연구 1)과 직장인 152명(연구 2)을 모집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높은 경제적 수준은 높은 수준의 정신건강으로 이어졌으나 높은 물질주의는 오히려 낮은 수준의 정신건강으로 이어졌다. 나아

가 경제적 수준은 물질주의와 다양한 정신건강 지표의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구 1에서 물질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객관적 및 주관적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높은 우울감, 낮은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낮은 삶의 의미를 보였으며, 연구대상을 재직자로 한정된 연구 2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즉, 물질에서 가치와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낮은 수준의 정신건강을 보였다. 이는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의 부적 관계를 설명하는 두 가지 관점 중 물질적 가치의 추구가 근원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심리적 욕구 비충족 관점에 더 가까운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정신건강의 여러 지표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객관적 경제적 수준뿐 아니라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경제적 수준의 조절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선행연구를 보완 및 확장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연구 1의 결과가 직장인으로 참여자를 제한한 연구 2에서 재검증되었다는 점, 두 연구 모두에서 참여자들의 소득이 한국 사회의 평균적인 수준이었다는 점은 각각 본 연구의 높은 내적, 외적 타당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정신건강이 사회적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때(Diener & Seligman, 2002), 본 연구의 결과는 물질주의가 높은 사람들의 대인관계에도 시사점을 지닌다. 물질주의가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를 잘 구축하지 못하고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낄 뿐 아니라(박진영, 최혜원, 서은국, 2012; 김가영, 임남연, 서은국, 2016; Pieters, 2013), 주변 사람들도 이들과의 관계의 질을 낮게 평가한다(Solberg et al., 2004). 이러한 결과는 물질주의 가치관이 “본인 외에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Kasser(2002, p.95)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며,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가 개인을 넘어 가정과 사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연구 1과 2 모두에서 참여자들의 경제적 수준은 대부분의 준거변인과 높은 정신건강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높은 경제적 수준은 높은 수준의 심리적 안녕감 및 삶의 의미와 더불어 낮은 수준의 우울감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결과는 객관적 및 주관적 경제적 수준에서 대부분 일관적인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경제적 수준을 누리는 것이 정신건강에 긍정적이라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며(Stevenson & Wolfers, 2013),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물질의 소유 그 자체가 아니라 물질에서 의미를 찾고 물질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물질주의임을 보여준다. 서론에서 언급한 Hudders와 Pandelaere(2012)의 연구에서, 물질주의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 명품 소비를 많이 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기는 했지만, 물질주의가 낮으면서 명품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만큼 만족도가 높아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물질을 삶의 중심가치로 추구하는 물질주의자들이 실제로 많은 물질을 갖게 된다고 해도 높은 수준의 정신건강을 보이지는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의 대상은 평균적인 월 소득을 누리고 있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연구에서 다른 객관적 경제적 수준이 현실과 목표 사이의 괴리를 좁힐 만큼 높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나 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높고 과장된 목표를 설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Sirgy, 1998), 본 연구에서 경제적 수준의 유의한 조절효과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그 목표에 상응하는 수준의 소득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대안적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연구 1과 2에서 참여자들은 월 소득 외에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경제적 수준에 대해서도 응답하였으며, 자신의 현재 경제적 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물질주의 가치관과 정신건강이 부적 상관을 보였다. 다만, 추후 연구에서는 한국의 평균 소득을 훨씬 웃도는 경제적 수준을 누리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하거나 참여자들의 소득과 물질적 목표 수준을 모두 측정하여 이러한 대안적 해석을 추가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관적 경제적 수준의 척도가 물질주의가 높은 사람들의 경제적 목표와 현실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세밀하게 측정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각된 자원 이용가능성 척도는 개인이 현재 향유하는 경제적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측정할 뿐, 개인의 물질적 목표의 수준이나 목표 수준과 현실 간의 괴리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개인이 추구하는 물질적 목표나 사회 내 개인이 바라는 경제적 위치를 함께 측정하는 등 경제적 목표와 현실 간의 간극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보다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덧붙여, 객관적 및 주관적 경제적 수준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구재선과 서은국(2011) 및 Johnson과 Krueger (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신건강에 있어 주관적 경제적 수준의 영향력이 객관적 경

제적 수준보다 클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연구 1에서 객관적 경제적 수준이 정신건강을 나타내는 모든 변인과 관련성을 보인 것과 달리, 주관적 경제적 수준은 다소 일관적이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주관적 경제적 수준이 객관적 경제적 수준보다 정신건강과 더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는 선행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로, 이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상관연구인 본 연구의 특성상 인과적 방향을 추론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높은 물질주의가 낮은 정신건강으로 이어진다는 방향성을 가정하고 가설을 제시하였으나, 반대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물질에서 의미를 찾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정신건강의 지표 중 하나인 외로움의 증가와 물질주의의 증가가 양방향 인과관계를 갖는다는 연구결과(Pieters, 2013)나 자기회귀의 증가가 높은 물질주의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Chang & Arkin, 2002)는 이러한 대안적 관점을 지지한다. 한편, Kasser와 동료들(2014)은 12년, 2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된 종단 연구를 통해 물질주의가 시간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의 변화를 설명한다는 것을 검증하였고, 물질주의를 낮추는 중재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학생들의 자존감이 높아짐을 보고하였다. 이렇듯 아직 선행연구가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의 방향성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로는 물질주의와 정신건강 사이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변인들을 탐색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감사 성향은 물질주의와 부정적 정서의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변인으로 나타난 바 있다(Roberts, Tsang, & Manolis, 2015). 즉, 감사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높은 물질주의를 가지고 있더라도 부적 정서를 적게 느꼈다. 한국 사회의 낮은 행복의 원인 중 하나로 높은 물질주의가 꼽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Diener et al., 2010),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인을 탐색하는 것은 단순히 학문적인 이해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닐 것이다.

마지막으로, 물질주의의 선행요인에 대한 탐색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질주의가 한국인들의 낮은 정신건강 수준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한다면 어떤 요인이 개인으로 하여금 물질주의 가치관을 추구하게 하는지를 탐색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낮은 정신건강 수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개인의 물질주의

수준은 부모의 양육방식(김유연, 박성연, 2001; Richins & Chaplin, 2015), 친구와의 관계(Roberts, Manolis, & Tanner Jr., 2008) 및 광고(박배진, 2007) 등 관계적, 환경적 영향을 받는다는 기존 연구에 더하여 어떤 개인적 요인이 물질주의 가치관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선행요인에 대한 탐색은 물질주의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돕고 나아가 물질주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닐 수 있다.

한 때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일상적인 인사말로 널리 사용되었을 정도로 부(富)에 대한 한국 사회의 욕망과 관심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물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삶과 연관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물질에 대한 가치부여가 당연시되는 현재 한국 사회의 풍토가 정말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가족, 친구, 미디어 등 환경적인 요소가 물질주의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Goldberg, Gorn, Peracchio, & Bamossy, 2003)을 고려할 때, 현재 한국 사회가 양성하고 있는 미래 세대는 어떤 모습인지, 건강한 개인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신희성은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심리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행복, 가치관과 정체성 등이다.

(E-mail: heesung.shin7@gmail.com)

김태익은 현재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가치관, 편견, 시간관과 의사결정 등이다.

(E-mail: taeikkim115@gmail.com)

박유빈은 고려대학교에서 심리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University of Toronto에서 심리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대인/연인관계, 애착 등이다.

(E-mail: yoobinlpark@gmail.com)

박선웅은 미국 Northeastern University에서 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나르시시즘에 관련된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으며, 현재 물질주의를 포함한 외적가치 추구 성향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mail: sunwpark@korea.ac.kr)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 국민관심질병통계. <http://opendata.hira.or.kr/op/opc/olapMfrnIntrslInsInfo.do>에서 2017.7.19. 인출.
- 구재선, 서은국. (2011). 한국인, 누가 언제 행복한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pp.143-166.
- 김가영, 임낭연, 서은국. (2016). 외로움과 돈에 대한 왜곡된 믿음: 행복추구 수단으로서의 돈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0(1), pp.1-21.
- 김경미. (2014). 대학생의 물질주의와 주관적 안녕감 및 대학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10), pp.295-314.
- 김유연, 박성연. (2001). 부모 양육태도 및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물질주의 가치관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pp.1-13.
- 박배진. (2007). 광고가 물질주의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32, pp.51-77.
- 박진영, 최혜원, 서은국. (2012). 물질주의와 인간관계 경시의 심리적 원인: 낮은 일반적 신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1), pp.23-36.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시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pp.1147-1168.
- 원두리, 김교현, 권선중. (2005). 한국판 삶의 의미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2), pp.211-225.
- 이민아, 송리라. (2014). 소득, 물질주의와 행복의 관계. *한국인구학*, 37(4), 89-114.
- 장하성. (2015). 왜 분노해야 하는가. 성남: 헤이박스.
- 전점규, 이민규. (1992). 한국판 CES-D 개발 연구 1.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1(1), pp.65-76.
- 통계청. (2016). *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19H002&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E1#에서 2016.12.3. 인출.
- 홍세희, 정승. (2014).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상호작용효과 검증: 이론과 절

차. *인간발달연구*, 21(4), pp.1-24.

- Belk, R. W. (1984). Three scales to measure constructs related to materialism: Reliability, validity, and relationships to measures of happines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1(1), pp.291-297.
- Brown, K. W., Kasser, T., Ryan, R. M., Linley, P. A., & Orzech, K. (2009). When what one has is enough: Mindfulness, financial desire discrepancy,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5), pp.727-736.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hang, L., & Arkin, R. M. (2002). Materialism as an attempt to cope with uncertainty. *Psychology & Marketing*, 19(5), pp.389-406.
- Christopher, A. N., & Schlenker, B. R. (2004). Materialism and affect: The role of self-presentational concer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2), pp.260-272.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pp.227-268.
- Diener, E., & Biswas-Diener, R. (2002). Will money increase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57(2), pp.119-169.
- Diener, E., & Seligman, M. E. (2002). Very happy people. *Psychological Science*, 13(1), pp.81-84.
- Diener, E., Suh, E. M., Kim-Prieto, C., Biswas-Diener, R., & Tay, L. S. (2010). Unhappiness in South Korea: Why it is high and what might be done about it. *한국심리학회, 2010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서울: 한국심리학회. pp.1-23.
- Dittmar, H., Bond, R., Hurst, M., & Kasser, T.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 materialism and personal well-be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7(5), pp.879-924.
- Easterlin, R.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David P. A. and Reder M. W. (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r of Moses Abramovitz* (pp. 89-125). New York: Academic Press.
- Goldberg, M. E., Gorn, G. J., Peracchio, L. A., & Bamossy, G. (2003). Understanding materialism among youth.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3(3), pp.278-288.
- Griskevicius, V., Delton, A. W., Robertson, T. E., & Tybur, J. M. (2011). Environmental contingency in life history strategies: The influence of mortality and socioeconomic status on reproductive tim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2), pp.241-254.
- Hudders, L., & Pandelaere, M. (2012). The silver lining of materialism: The impact of luxury consumption on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3(3), pp.411-437.
- Johnson, W., & Krueger, R. F. (2006). How money buys happiness: Genetic and environmental processes linking finances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4), pp.680-691.
- Kasser, T. (2002). *The high price of materialism*. Cambridge, MA: MIT Press.
- Kasser, T., & Ahuvia, A. (2002). Materialistic values and well-being in business student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2(1), pp.137-146.
- Kasser, T., & Kasser, V. G. (2001). The dreams of people high and low in materialism.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2(6), pp.693-719.
- Kasser, T., Rosenblum, K. L., Sameroff, A. J., Deci, E. L., Niemiec, C. P., Ryan, R. M. et al., (2014). Changes in materialism, changes in psychological well-being: Evidence from three longitudinal studies and an intervention experiment. *Motivation and Emotion*, 38(1), pp.1-22.
- Kasser, T., & Ryan, R. M. (1993). A dark side of the American dream: Correlates of financial success as a central life aspi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2), pp.410-422.

- Kasser, T., & Ryan, R. M. (1996). Further examining the American dream: Differential correlates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3), pp.280-287.
- Kasser, T., & Ryan, R. M. (2001).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Optimal functioning and the relative attainment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In Schmuck P. and Sheldon K. M. (eds.), *Life goals and well-being: Towards a positive psychology of human striving* (pp.116-131). Ashland, OH: Hogrefe & Huber.
- Kasser, T., Ryan, R. M., Couchman, C. E., & Sheldon, K. M. (2004). Materialistic values: Their causes and consequences. In Kasser T. and Kanner A. D. (eds.), *Psychology and consumer culture: The struggle for a good life in a materialistic world* (pp.11-2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lug, H. J., & Maier, G. W. (2015). Linking goal progress and subjective well-be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6(1), pp.37-65.
- La Barbera, P. A., & Gürhan, Z. (1997). The role of materialism, religiosity, and demographics in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y & Marketing*, 14(1), pp.71-97.
- Nickerson, C., Schwarz, N., Diener, E., & Kahneman, D. (2003). Zeroing in on the dark side of the American dream: A closer look at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the goal for financial success. *Psychological Science*, 14(6), pp.531-536.
- Niemiec, C. P., Ryan, R. M., & Deci, E. L. (2009). The path taken: Consequences of attaining intrinsic and extrinsic aspirations in post-college lif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73(3), pp.291-306.
- Noguti, V., & Bokeyar, A. L. (2014). Who am I?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uncertainty and materialism.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9(5), pp.323-333.
- Pieters, R. (2013). Bidirectional dynamics of materialism and loneliness: Not just a vicious cycl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0(4), pp.615-631.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pp.385-401.
- Richins, M. L. (2013). When wanting is better than having: Materialism, transformation expectations, and product-evoked emotions in the purchase proces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0(1), pp.1-18.
- Richins, M. L., & Chaplin, L. N. (2015). Material parenting: How the use of goods in parenting fosters materialism in the next gener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1(6), pp.1333-1357.
- Richins, M. L., & Dawson, S. (1992).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3), pp.303-316.
- Roberts, J. A., & Clement, A. (2007). Materialism and satisfaction with over-all quality of life and eight life domain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2(1), pp.79-92.
- Roberts, J. A., Manolis, C., & Tanner Jr, J. F. (2008). Interpersonal influence and adolescent materialism and compulsive buying. *Social Influence*, 3(2), pp.114-131.
- Roberts, J. A., Tsang, J. A., & Manolis, C. (2015). Looking for happiness in all the wrong places: The moderating role of gratitude and affect in the materialism-life satisfaction relationship.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0(6), pp.489-498.
- Ross, C. E., & Mirowsky, J. (1992). Households, employment, and the sense of control.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5(3), pp.217-235.
- Ryan, L., & Dziurawiec, S. (2001). Materialism and its relationship to life satisfac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55(2), pp.185-197.
- Ryff, C.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pp.1069-1081.
- Ryff, C., Almeida, D. M., Ayanian, J., Deborah, S. C., Cleary, D. P., Coe, C. et al., (2012). *National Survey of Midlife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MIDUS II)*,

- 2004-2006. <http://doi.org/10.3886/ICPSR04652.v6>.에서 2016.8.26. 인출.
- Sagiv, L., & Schwartz, S. H. (2000). Value priorities and subjective well-being: Direct relations and congruity effect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0(2), pp.177-198.
- Schwartz, S. H. (1996). Values priorities and behavior: Applying of theory of integrated value systems. In Seligman C., Olson, J. M., & Zanna M. P. (eds.), *The psychology of values: The Ontario symposium*, 8, pp.1-24. Hillsdale, NJ: Erlbaum.
- Sirgy, M. J. (1998). Materialism and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43(3), pp.227-260.
- Sirgy, M. J., Gurel-Atay, E., Webb, D., Cacic, M., Husic-Mehmedovic, M., Ekici, A. et al., (2013). Is materialism all that bad? Effects on satisfaction with material life, life satisfaction, and economic motiv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0(1), pp.349-366.
- Sirgy, M. J., Lee, D., Larsen, V., & Wright, N. (1998). Satisfaction with material possessions and general well-being: The role of materialism. *Journal of Consumer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and Complaining Behavior*, 11, pp.103-118.
- Solberg, E. G., Diener, E., & Robinson, M. D. (2004). Why are materialists less satisfied? In Kasser T. and Kanner A. D. (eds.), *Psychology and consumer culture: The struggle for a good life in a materialistic world* (pp.29-4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olberg, E. C, Diener, E., Wirtz, D., Lucas, R. E., & Oishi, S. (2002). Wanting, having, and satisfaction: Examining the role of desire discrepancies in satisfaction with inco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3), pp.725-734.
- Steger, M. F., Frazier, P., Oishi, S., & Kaler, M. (2006).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ssessing the presence of and search for meaning in lif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pp.80-93.
- Steger, M. F., Oishi, S., & Kashdan, T. B. (2009). Meaning in life across the life

- span: Levels and correlates of meaning in life from emerging adulthood to older adulthood.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1), pp.43-52.
- Stevenson, B., & Wolfers, J. (2013). Subjective well-being and income: Is there any evidence of sati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103(3), pp.598-604.
- Sumarwan, U., & Hira, T. K. (1993). The effects of perceived locus of control and perceived income adequacy on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of rural household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4), pp.343-364.
- Vansteenkiste, M., Duriez, B., Simons, J., & Soenens, B. (2006). Materialistic values and well-being among business students: Further evidence of their detrimental effect.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6(12), pp.2892-2908.
- Ward, S., & Wackman, D. (1971). Family and media influences on adolescent consumer learning.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14(3), pp.415-427.
- Watson, D. C. (2014). Materialism: Profiles of agreeableness and neurotic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6, pp.197-200.
- Watson, D. C. (2015). Materials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 facet-level analysis. *North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7(1), pp.133-150.
- World Bank. (2017). *GDP ranking*. <https://data.worldbank.org/data-catalog/gdp-ranking-table>에서 2017.7.23. 인출.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7). *World health statistics: Monitoring health for the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Geneva: Author.

Materialism and Mental Health: A Negative Relation Not Moderated by Economic Status

Shin, Heesung

(Korea University)

Park, Yoobin

(Korea University)

Kim, Taeik

(Korea University)

Park, Sun W.

(Korea University)

In light of the previous studies that have found a negative relation between materialism and various indicators of mental health, the present research aimed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an individual's objective and subjective economic status. Two different perspectives have been discussed regarding materialists' poor mental health: discrepancy between high materialistic goals and reality, and unmet psychological needs resulting from the pursuit of extrinsic goals. Two studies were conducted to test the different prediction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economic status that were made according to each perspective. In Study 1 (N = 169), we examined whether participants' monthly household income (objective economic status) or perceived resource availability (subjective economic status) moderated the relation between materialis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meaning in life, and depression. In Study 2 (N = 152), we recruited only currently employed individuals in order to control for the perceived power over their economic resources. In both studies, materialism was negatively related to various indicators of mental health. This relation was not moderated by individuals' objective or subjective economic status, supporting the unmet psychological needs perspective. We discuss implications of the results with regard to the prevalent materialism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Keywords: Materialism, Mental Health, Income, Economic Status, Perceived Economic Status